

유럽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고찰*

조 홍 식 | 북경외국어대학 객원교수

이 논문은 유럽연합 차원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시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유럽 정체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유럽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은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의 민족 정체성과 반드시 대립하는 관계는 아니다. 다만 민족과 유럽을 대립적으로 규정하는 정치 세력의 전략에 따라 선거 시기에는 다소 대립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미래 유럽에 대한 인식은 국제 협력체에서 국제적 세력 또는 세계연합의 모델로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둘째로는 유럽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체성 만들기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역사 속에서 유럽을 어떻게 정의내리는가, 공간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유럽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유럽 정체성이란 다른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유동적이며 분쟁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유럽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성공적인 정치·경제 모델로 내세우는 것은 물론 다른 대륙도 유럽과 같은 지역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촉구하고 있다. 결국 현재 진행형의 유럽 정체성 현상을 더욱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통합의 진전과 함께 미시적인 정체성 전략의 상호 관계를 상세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유럽, 유럽연합, 정체성, 민족, 민족주의

* 세심한 평가와 제안으로 이 논문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 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I. 정체성의 전략

유럽 정체성의 형성은 유럽연합이라는 정치 체제가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은 유럽인 개인과 유럽 민족(European people)이라고 불리는 정치 공동체를 종적으로 연결하는 기제임과 동시에, 유럽인 개인들을 횡적으로 연결하여 유럽 민족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럽 정체성이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럽이 존재한다는 의식,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에 자신이 속하며 공동체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특징들을 다른 소속원들과 공유한다는 주관적 의식을 의미한다.

유럽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이나 민족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첫째, 유럽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영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영토 정체성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지역 정체성과 민족 국가 차원의 민족 정체성, 그리고 대륙 차원의 유럽 정체성은 영토 정체성의 컨티뉴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럽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체성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민족이 국가로 실현되듯이 유럽은 유럽연합으로 실현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나 유럽연합은 모두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재분배하는 정치적 제도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치적 성격의 영토 정체성인 유럽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기초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족을 고대로부터 연결되어 내려온 종족적 단위라고 주장하는 원초주의(Hastings, 1997; Connor, 1993)와 근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성된 문화적 단위라고 주장하는 근대주의의 논쟁은 민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논의의 결과는 민족의 현상은 근대로의 돌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다만 근

대 민족이 기존의 종족적 단위를 발굴한 것인지(Smith, 1986; 1998), 아니면 조작해 만들어 낸 것인지(Gellner, 1983; Hobsbawm, 1992)에 대한 입장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유럽에 관한 한 이와 같은 논의는 근대주의적 또는 탈근대주의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대를 대표하는 민족 국가를 초월 또는 전환, 아니면 적어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움직임이 바로 유럽 통합이며 그 과정에서 유럽이라는 민족이 만들어 진다면 그야말로 근대에서 다른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유럽이라는 민족이 만들어 진다면 이는 근대주의의 입장과 특히 조작론의 입장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초주의/근대주의에 이어 민족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은 정체성의 문제이다. 정체성은 민족이라는 집단과 개인이라는 구성원을 연결하는 기체로서 민족을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논의는 민족의 종족적·문화적·관습적·생활적 특성들이 객관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본질주의와 반대로 소위 민족의 특성들이란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구성주의의 대립 논쟁이다.¹ 여기서는 민족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유럽 정체성 역시 기존의 본질적 재료를 특정한 행위자들이 필요에 의해 구성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Martin, 1992).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본질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편 정체성이 전략적으로 조작·발굴되는 과정을 바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유럽 정체성이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다음은 유럽 정체성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봄으로서 그 전략적 차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유럽 정체성의 관계적 차원을 고려하여 대외 관계에서 정체성이 형성·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하도록 한다.

1. 민족국가와 유럽연합의 차원에서 구성주의적 접근을 활용한 연구로는 Biersteker and Weber(1996), Checkel(1998), Koslowski(1999), MacCormick(1999), Marcussen et al.(1999)을 참고할 것.

II. 유럽 정체성의 현황

여기서 유럽 정체성이란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도 또는 기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정체성은 아니다. 유럽 정체성은 유럽연합의 시민이라는 차원에서 규정되는 시민권에 비하면 보다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을 동반하는 개념으로서 유럽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주관적 의식과 태도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유럽 정체성은 대내적으로 다른 유럽인들과의 연대의식, 그리고 대외적으로 다른 지역 또는 국가의 사람들과의 차별적 관계 규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른 한편 동태적인 차원에서는 유럽이라는 단위의 정치 공동체가 더욱 강화되어 가야 한다는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로서 표출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럽 정체성이란 대내적 연대의식, 대외적 차별성,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 등으로 구현되는 유럽에 대한 주관적 동일화(identification)의 정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처럼 광범위한 유럽에 대한 정체성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통합의 실현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유럽 연합은 유럽이라는 추상적인 단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토와 경계를 부여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유럽적이고 어디까지가 유럽인지를 규정하여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럽연합은 제도나 정책을 통해 대내적 연대의식이나 대외적 차별성이라는 정체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유럽연합이라는 제도와 기구를 통해 추진되는 유럽 통합은 유럽 정체성과 완전히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선은 유럽 정체성과 기존의 지역 및 민족 정체성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유럽 차원의 정치가 구현되는 가장 대표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관련 선거 기간에 나타나는 유럽 정체성의 제반 문제들을 분석해 본다. 마지막으로 유럽인들이 유럽의 미래에 대해 어떤 투영적 정체성²을

구상하고 있는지 비교해 봄으로서 정체성의 유동성과 다양성을 가늠해 본다.

1. 지역 및 민족 정체성과 유럽 정체성

기존의 많은 연구는 유럽 통합과 민족 국가의 상호 관계를 모순적으로 보아 왔다(Grieco, 1993; Sabourin, 1994; Moravcsik, 1998). 유럽 통합이 진행될수록 민족 국가의 권력과 지위는 약화되는 것으로 보였고 동시에 유럽에 대한 동일화와 민족에 대한 동일화는 상호 모순 또는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유럽과 민족 정체성의 상호 관계와 마찬가지로 지역과 민족 정체성의 관계도 상호 배타적으로 인식되었다. 예를 들면 정치학의 많은 중앙-주변 관계를 논의하는 연구들은 이를 기본적으로 갈등적인 구조 속에서 분석하였다(Chavallier, 1992). 그러나 최근의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지역, 민족, 유럽 정체성이 결코 모순적이거나 상호 배타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말 프랑스에서 진행된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uchesne, 1997). 이 연구는 여론조사보다는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인들의 민족과 유럽에 대한 사고를 분석하는 연구인데, 그 중요한 결과는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유럽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달리 말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민족과 유럽 정체성의 상호 배타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 보충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인은 영토 정체성에 있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류는 그것이 민족이 되었건 또는 유럽이 되었건 영토 정체성에 대해 민감하고 집단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욕구를 나타내는 부류라고 하겠다. 이들은 민족이나 유럽에 대한 강력한 소속감을 보여주는 한편 자신의 영토 정체성 이외의 구성원에게는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존재

-
2. 여기서 투영적 정체성이란 유럽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목적과 기대를 투영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 또는 현재를 인식하는 정체성과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Kastoryano (1998)를 참고할 것.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두 번째 부류는 인류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영토 또는 집단 정체성을 부정하는 경향을 가진 부류로서 이들은 개인과 개인의 평등한 지위를 믿고 있으며, 개인 혹은 인류만이 적절한 정체성의 단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부류를 우리는 특수주의적 태도와 보편주의적 태도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Duchesne and Frogner, 2002: 347-365).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사고한다면 지역에 대한 애함심이 강한 사람이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강하고, 같은 이가 유럽에 대한 충성심 역시 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은 어찌 보면 민족 국가 단위에서 진행되었던 정체성을 독점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지역, 민족, 유럽 등 각각의 차원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은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지역-민족-유럽의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의 밀도에 있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지역이 일상적인 상호관계와 생활영역 속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유럽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인 사회관계보다는 상상의 차원을 동원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둘째, 이 세 단계의 정체성은 위와 같은 이유로 사회 계급에 따라 다른 정도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반 대중에 있어 지역이나 민족 정체성이 무척 중요한 반면 유럽 정체성은 다른 문명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대륙간 여행이 빈번한 엘리트 계층에서 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정체성 만들기 과정에서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민족에 대해 하부의 지역과 상부의 유럽이 상호 협력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Smouts, 1998).

2. 유럽 관련 선거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가 표출되는 중요한 기회임에 틀림없다. 선거를 통해 정치 세력들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축제적 기제를 통해 공동체는 또한 공동체로서 자신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유럽 연합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유로 바로미터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럽 관련 선거 기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유럽 관련 선거란 유럽 의회 선거나 유럽의 조약 체결 이후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를 의미한다. 평소에는 유럽에 대한 태도나 입장이 민족적 정체성과 커다란 모순적 또는 배타적 차원을 드러내지 않다가도, 유럽 관련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민족과 유럽 정체성 사이에 상당한 모순적 차원이 등장하는 것이다(Cautrès, 2003: 38-57).

왜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민족과 유럽의 모순적 차원이 선거 기간에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같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민족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차원을 분석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위에서 살펴본 사회학적 차원의 정체성으로서 개인이 인류를 제외한 어떤 특수한 집단에 대해 소속감을 가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민족과 유럽에 대한 정체성이 상충하지 않고 존재한다. 이것이 평상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족 정체성의 두 번째 차원은 정치적 차원의 정체성으로서 정치 행위자 또는 세력들의 전략과 상호 역학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정체성의 문제이다. 달리 말해서 선거철이 되면, 그리고 유럽이라는 쟁점이 선거의 중요한 균열 구조로 등장하는 시기가 되면, 정치 세력들은 유럽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유럽과 민족 정체성이 상호 모순된 형식으로 자주 제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경쟁이 활발한 유럽 관련 선거 시기에는 평소와는 달리 민족 또는 유럽의 정체성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특히 유럽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선거 시기에 나타나는 유럽 정체성의 문제도 변화하고 있다. 우선 과거에 자주 등장했던 쟁점은 유럽 통합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유럽 통합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이미 극단적 정치 세력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유럽 논의는 어떤 유럽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정체성을 규정하는 투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조홍식, 1995).

다음은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을 둘러싸고 나타난 유럽이라는 균열 구조가 점차 좌우 균열 구조와 함께 중요한 정치 균열 구조로 정착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좌우파 양 진영 내에 친반 유럽 세력이 존재하고 대립하는 양상을 자주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가별 차이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 좌파 정체성을 가진 유권자의 57%가 유럽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는 이 수치가 29%에 불과한 것이다³(Cautrès, 2003: 57).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사실은 유럽과 민족 정체성이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유럽 문제에 관한 정치 세력 간의 경쟁과 투쟁이 강화되는 선거 기간에는 정치 세력의 차별화 전략으로 인해 유럽과 민족 정체성이 충돌하는 양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역시 평상시의 장기적인 경향은 기초 지역 공동체, 지방, 민족, 유럽 사이에 모순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3. 유럽에 대한 비전

유럽 정체성의 특징은 유럽 통합 운동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확정된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해서 과거의 관성보다는 미래를 향한 투영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가변성은 상당한 취약성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잠재력을 안고 있다. 최근의 일부 연구는 젊은이들이 미래의 유럽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여 다양한 유럽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Belot, 2000).

이상의 유럽 비전 연구에 의하면 미래의 유럽은 세 가지 시나리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첫 번째 모델은 단순한 유럽 국가들 간의 협력 체제로서의

3. 1999년 유럽 의회 선거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유럽이다. 어떤 면에서 현재의 유럽연합은 이미 이 단순한 국가 협력 체제의 단계를 초월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미래의 유럽을 이런 방식으로 그리는 것은 유럽 통합 현실에 대한 무지를 반영하거나, 향후 유럽 통합이 퇴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협력 체제로서의 유럽은 영국의 대표적인 ‘민족들의 유럽(Europe of nations)’ 또는 프랑스에서 일부 제시되었던 ‘조국들의 유럽(Europe des patries)’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전히 민족 국가만이 주권의 성스러운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 비전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유럽의 모델이다. 기존의 초강대국으로 과거의 미국과 소련,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는 특히 미국의 독주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유럽의 존재가 바로 초강대국으로서 또는 세계 질서의 하나의 축으로서 유럽에 대한 기대인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유럽 화폐 통합과 이로서 달러와 유로가 경쟁하는 세계에서 그 첫걸음을 찾아 볼 수도 있고, 외교안보적인 차원에서 미국에 맞서 당당히 발언할 수 있는 유럽에 대한 기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세 번째 비전은 인류를 하나로 묶는 세계 연합의 모델로서의 유럽연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여러 국가와 사회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변형을 이룰 수 있는 정치·사회적 모델로서 적합하고 이러한 모델을 전 세계로 수출하여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모두 민족 국가의 원칙과 평화 공존의 연합을 조화롭게 이룩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이 세 번째 비전은 그야말로 인류 보편성을 추구하는 문명적 입장으로서 연방주의자들의 주장을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와 영국 젊은이들의 유럽에 대한 비전은 상당한 가변성과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민족 정체성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도 상당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테지만 유럽의 경우 아직 역사가 짧고 어떤 면에서 공식적인 유럽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욱 혼란스럽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발견은 젊은이들의 비전이 기존의 학계나 정치 세력이 제시한 유럽의 비전을 상당 부분 인용·활용·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유럽을 둘러싼 정체성 만들기의 투쟁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

안 지속될 것이다.

유럽 정체성은 일부 정치 세력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민족 정체성과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집단 정체성 성향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민족과 유럽 정체성은 같은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선거 기간에는 정치 세력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 민족과 유럽 정체성을 모순적으로 규정하여 지지를 동원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유럽의 미래 모습을 투영하는 비전을 살펴보면 여전히 국제 협력체로서의 유럽, 초강대국으로의 유럽, 그리고 세계 연합 모델로서의 유럽이라는 세 가지 비전이 경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정체성의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여러 개의 경쟁적 비전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는 다양한 비전이 유럽이라는 단위를 중심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과거 서유럽과 미국을 묶는 대서양주의, 그리고 동유럽과 소련을 묶는 공산세계, 또는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국가를 연결하는 프랑스어권, 영국과 구 식민지를 한데 엮는 코먼웰스 등의 잠재적 공동체나 정체성과의 경쟁에서 유럽 단위가 핵심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이런 현상은 민족 정체성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시장사회를 지향하는 민족 정체성과 사회주의 평등사회를 목표로 하는 민족 정체성이 경쟁한다고 해서 민족 정체성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III. 유럽 정체성 만들기

민족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유럽 정체성은 본질적 재료를 가지고 특정 행위자에 의해 만들어 진다.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민족과 같은 영토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핵심적 요소인 시간과 공간과 문화라는 차원에서 유럽 정체성 만들기를 관찰해 본다. 이러한 유럽 정체성 만들기는 유럽 연합이 추

4. 유럽연합에 관한 구성주의적 이론을 소개하는 또는 이를 적용하여 연구한 국내 문헌으로는 고상두(2003), 진시원(2004)을 들 수 있다.

진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일부 유럽주의자, 학자, 전문가, 지식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1. 시간 속의 유럽

역사 속에서 유럽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유럽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정체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집단을 하나의 생물체에 비유하면서 삶과 죽음, 운명과 사명, 생로병사 등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족주의 정체성 만들기에 있어서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중요한 정통성 부여의 역할을 하듯이 유럽 역시 긴 역사를 자랑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가장 대표적인 접근은 드루주몽(De Rougemont, 1990)의 ‘28세기의 유럽사’를 들 수 있다. 프랑스어권 스위스의 인문학자 드루주몽은 적어도 그리스 문명에서 유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로마 문명, 중세 기독교 문명, 계몽주의, 낭만주의 등을 거쳐 20세기의 유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 역시 유럽 역사의 시작을 그리스 문명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스, 로마, 중세 유럽으로 연결되는 역사 발전의 고리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기독교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경우 그리스 뿐 아니라 유대 기독교적 유산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유럽의 근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적 전통과 유산을 강조하는 정치세력이나 지식인들은 유럽의 근대 문명 자체가 기독교적 개인주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Dumont, 1991). 달리 말해서 기독교의 전통을 부정하면서 발전한 계몽주의 역시 기독교적 개인주의의 성향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온 전통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기독교의 전통과 유산을 감안하지 않고서는 근대의 유럽을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이 같은 기독교적 전통과 유산은 같은 근동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회교와 교류하거나 대립 또는 경쟁하면서 발전되어 왔다. 유럽의 근대 문명

과 정체성이 오리엔트 즉 아랍 세계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성장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미 일찍 지적되었다(Said, 1979). 역사·사회학적 접근에서 바디와 같은 학자들은 서구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를 회교 전통에서 정치와 종교 권력의 집중 양상과 대비시켜 설명하였다(Badie, 1997). 결국 유럽이 근대 문명의 기축이 되는 민족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와 봉건주의의 상호 관계 속에서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의 기독교적 전통과 유산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이성과 합리주의의 계몽주의를 근대 유럽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Beaurepaire, 2004). 기독교는 십자군 원정을 낳았고, 유럽 내부의 종교 전쟁의 원인이었으며, 다른 대륙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적 행위의 종교적 원인을 제공했다. 게다가 나치즘의 유대인 말살 정책은 이러한 기독교의 이교도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반성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유럽, 또는 세계에 문명적 중심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유럽의 정체성은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라 종교의 암흑과 같은 시대를 종결하고 이성과 합리주의,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기초를 제공했던 계몽주의에서 그 시작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문명으로서의 유럽이란 시각에서 본다면 결국 민족주의도 잦은 유럽의 전쟁과 제국주의적 경쟁을 초래한 주범으로 등장하고, 유럽 정체성이란 바로 민족을 극복하는 이성적 계획으로 부상하게 되는 것이다.⁵ 기독교 문명론과 근대 문명론의 논쟁은 결국 유럽을 본질적 특성을 보유하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연합의 모델로 내세울 만한 근대성의 합리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의 결정체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유럽 논의는 문화적 요소의 논쟁과도 직접 연관된다.

5. 일레르 Morin(1990)은 유럽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화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다양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양한 것을 포괄하는 관용적 능력이야말로 유럽성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공간 속의 유럽

유럽은 어디까지인가의 질문은 유럽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정체성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 같은 논의는 단순히 특정 시기의 유럽 공동체나 연합이 어떤 영토를 포괄하고 있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51년 파리 조약이 체결될 때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만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유럽이라는 명칭이 지칭하듯이 보다 포괄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유럽 정체성의 공간적 논의에 있어 결집력이 강한 유럽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는 세력들은 제한적인 공간적 정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그리고 느슨한 협력 체제를 희망하는 세력들은 광범위한 공간적 정의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어 왔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우랄산맥에서 대서양까지’의 유럽을 지향했던 것이나, 영국과 같이 심층적인 통합을 거부하는 정치 문화에서 지속적인 유럽 확대를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도 이러한 경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프랑스나 독일의 연방주의자들은 영국이나 신입 회원국들이 통합 발전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유럽의 핵심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국가들만으로 통합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단일 화폐권 형성에서 반대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통합을 추진한 사례는 대표적이다(Paddoa-Schioppa, 1994).

유럽의 공간적 논의는 처음에는 상당히 추상적인 유럽이라는 개념에서 시작하였지만 통합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초창기의 광범위한 개념 정의에 이후의 통합 운동이 종속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초창기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나 유럽 경제 공동체에서 유럽이란 ‘서유럽 민주국가 중국익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유럽’이라는 무척 제한적인 유럽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유럽은 점차 ‘서유럽 민주국가의 유럽’이란 의미를 띄게 되었고, 최근에는 ‘전유럽 민주국가의 유럽’이란 의미를 갖게 되었다.⁶ 그러나 이처럼 공간적 의미가 변화하면서, 그리고

유럽의 구체적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유럽성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터키는 유럽인가의 문제에 답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본질주의적·기독교적 정체성인가, 아니면 구성주의적·민주적 정체성인가에 대해 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미래에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의 유럽적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정체성의 문제를 노출시킬 것이다.

3. 무엇이 유럽적인가?

유럽성 즉 유럽 정체성을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문화적 공통점이나 특징을 유럽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가장 공식적으로 유럽 공동체 및 유럽연합 가입의 기준으로 적용된 유럽성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시장경제 두 가지였다. 물론 유럽 국가일 경우 위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유럽성을 보충하는 원칙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의 시장경제 체제는 동유럽의 계획경제 체제와 대립되었지만 동시에 광범위한 의미의 서방세계 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등의 체제와 분명 다른 종류의 제도에 기반하고 있었다(Albert, 1991; Hall and Soskice, 2001).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성이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마치 유럽성을 대표하는 핵심 문화적 요소로 기능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회원국 가입 여부와 관련된 논의보다는 무엇이 유럽성의 원칙이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지 몇 가지 가능성을 토론해 보도록 한다. 첫째, 기독교적인 전통의 문제는 역사적 유산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식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 헌법 논의

6. 유럽 차원에서 형성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비교적 고찰로는 김미경(2005)을 참고할 것.

에서 드러났듯이 기독교적인 전통이 유럽성을 정의내린다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종교 중립의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린 프랑스와 같은 사회의 반대는 차지하고라도, 유럽에는 이민으로 인해 이미 다수의 회교도 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대인들도 상당수 생활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 사회의 탈종교화 및 세속화가 이미 크게 진행되어 유럽 진보적 정치 세력의 반발이 무엇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독교적 전통과 유산은 학술적으로 유럽을 설명하는데 공식적으로 제시되지만 유럽 전체의 합의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적다는 판단이다.

유럽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상당한 특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하나의 모델로 작동할 가능성도 높다(De Montbrial, 2004).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유럽의 특징은 좌우익이 골고루 분포된 다당제와 상대적으로 발달된 인권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유럽은 좌우익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하는 전통이 존재하는 정치 문화이며, 좌익의 빈번한 집권을 통해 발달된 복지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모델의 차이는 분명 유럽이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정치 사회 모델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참여와 복지국가 사회 모델은 유럽의 확대에 의해 상당한 문제점에 봉착하기도 한다. 중동구의 상당수 국가들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개혁하면서 미국식의 최소 국가 모델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비해서 보다 도구적이며 합리주의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로서 유럽은 세속화된 탈물질주의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이다(Todd, 1990). 이러한 사회적 자유주의 역시 유럽의 특징적 정체성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 제도에 있어 유럽인들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전통 가족에 대한 집착에서 쉽게 벗어나 있다. 새로운 형식의 가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며 이혼이나 혼외 출생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다. 이에 관련된 낙태 및 안락사 등의 부문에서도 미국과 유럽의 차이는 명백한 편이다.

일부에서는 정체성 논의에서 협의의 문화적인 요인에 덧붙여 정치·경

제·사회의 정책이나 제도적인 특성들을 거론하는 데 따르는 혼동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회 조직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에 의해 부와 안보, 자유와 정의에 대한 우선적 배려나 선호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Strange, 1988), 정체성이란 이러한 선호의 구조가 다른 사회 조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내부화한 결과라고 한다면 정체성과 특정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제도 및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정체성의 현황에서 이미 보았듯이 유럽 정체성은 아직 활발하게 만들기가 진행 중인 정체성이다. 시간적으로 유럽의 기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어디서부터 현대 유럽의 시발점으로 삼을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기독교적 가치관과 전통을 강조하는 측과 계몽주의와 근대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측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공간적으로 유럽은 지속적으로 팽창해 왔는데 반세기 동안 적용되어 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치·경제적 기준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보다 본질적으로 유럽·비유럽을 구분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유럽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는 분명 중요한 화두로 존재할 테지만 전유럽을 대표할 수 있는 요소로 인정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민주주의 정치제도,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인간성, 세속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사회 등이 유럽을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논의를 지속하는 차원에서 다음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유럽의 정체성이 규정될 가능성들을 검토해 본다.

7. 물론 이와 같은 추상적인 요소들이 정체성을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반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체적이고 본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정체성의 요소란 그것이 구체적인수록 전략적으로 조작되었거나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럽과 같이 광범위한 공간과 인구의 공동체에서 근본적으로 민족이나 지역과 같은 강력한 정체성을 도출하기란 어렵다고 보여진다. 셋째, 미국이나 중국, 인도 등의 사례를 들어 강한 다민족 정체성의 존재를 열거할 수 있겠지만 유럽은 이들에 비해 공동체로서의 역사도 일천하고 앵글로색슨이나 한족 문화가 각각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미국이나 중국과 상호 존중 및 평등을 기조로 형성되어 가는 유럽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IV. 대외 관계 속에서의 정체성

정체성이란 항상 스스로 정의내린 정체성과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 속의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정체성은 타인 또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의미이다. 부연하자면 기독교 문명 또는 문화,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시장경제, 정권 교체와 좌우익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민주 정치 문화 등은 모두 유럽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본질적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이상의 요소들은 어떤 절대적인 형태로 결정된다기보다는 지속적인 현실적인 대외적 상호관계와 정책 속에서 역동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다(Bayart, 1996).

이같은 관점에서 유럽 정체성은 내부적인 토론과 주장의 과정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대륙이나 지역, 또는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내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유럽이 스스로를 기독교적인 문명이라기보다는 비종교적 민주주의 문명이라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문명의 충돌’(Huntington, 1996)적 논리로 회교권에서 유럽을 기독교 세력으로 규정한다면 유럽은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정체성은 따라서 민족 국가나 유럽연합 차원에서 안보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Waever, 1998).

다른 한편 대내 정책이 과거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듯이 현재진행형인 유럽 통합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이 현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측면이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체제나 환경레짐 등을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대립은 단순히 국익으로 인한 정책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세계질서의 형성을 둘러싼 세계관, 가치관, 인식 등의 대립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정체성의 형성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유럽과 협력, 경쟁 및 대립적 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살펴 보고, 유럽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세계와의 관계를 검토한다. 마지

막으로는 유럽의 통합 모델을 수출하려는 노력을 정체성 만들기의 대외적 차원으로서 분석한다.

1. 미국과의 차별성

유럽 통합이 시작되던 1950년대는 냉전 시기였고 따라서 유럽의 정체성 역시 미국과의 협력과 소련에 대항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 유럽 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모두 당시 서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권위주의 정권과의 차별성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나면서 상황은 크게 변했다. 무엇보다 1990년대 탈냉전 시기로 돌입하면서 소련이 붕괴되고 2005년에는 과거 소련에 속했던 발트 3국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유럽과 미국의 관계는 무척 협력적인 관계로 지속되어 왔지만 1960년대 이미 차별성 확보라는 차원이 제기되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60년 영국의 유럽 공동체 가입 신청과 이에 대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였다(Gerbet, 1983). 당시 드골 대통령은 유럽인들의 유럽, 독립적인 유럽, 특히 프랑스의 국력 지렛대로서의 유럽을 강조하였고, 친미적 성향이 강한 영국을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하면서 영국의 유럽 공동체 가입은 미국의 국익이 유럽 내부에 침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유럽 모든 회원국을 대표하는 성향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프랑스의 특수한 태도라고 할 수 있었다.

미국과 유럽이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켰던 분야는 경제 부문이었다(Kahler and Link, 1996). 유럽 통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역과 농업이었는데, 바로 이 두 분야에서 1970년대 세계적 경제 위기와 함께 분쟁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럽에서는 농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배어 있는 문화로 보는 경향이 존재하였고, 무엇보다 사회적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도가 발달되어 있었다. 유럽의 농업 지

원으로 인해 유럽은 거대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발돋움하였고 이는 미국의 반발을 가져왔다. 또한 유럽연합이 직접 연관된 사업은 아니지만 유럽 일부 국가들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에어버스 사업을 벌였고 이는 미국의 보잉과 맥도넬 더글러스와 같은 항공기 제조업체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겨주었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항공 산업을 육성한다고 비난하였고 이러한 분쟁은 결국 무역 문제로 유럽 공동체가 나서서 협상을 벌였다. 역시 무역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의 차별성은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을 논의하는 시기에 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쌍방관계를 통해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유럽이 제안한 세계무역기구의 설립에 반대했다. 결국 우루과이 라운드 마지막 협상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이 결정되었지만 말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적 분쟁은 국제통화질서에 대한 이견에서도 일어났다. 1971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브레튼우즈 화폐 질서를 폐기한 이후 국제통화질서는 실질적으로 국제 통화의 역할을 하는 달러의 가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이었다.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미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의 국제적 결과에 노출되었고 결국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 통화 체제 및 화폐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유럽은 1999년 단일 화폐권을 출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21세기에는 유로가 달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기로 돌입하였다.

직접적인 경제 이익이 개입되어 있는 부문에서 유럽과 미국이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대립 속에서 나타나는 일관성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럽은 지속적으로 지구적 문제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 제도화라는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무역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제안이 이러한 사례이며, 지구의 환경 분야에서 교토 조약 체결의 추진이나 국제 형사 법원의 추진 등이 모두 이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제도화된 국제 협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 사례로 유엔의 무능력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국제 제도가 사법적인 원칙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유럽은 외교 분야에서 미국에 비해 대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1년 미국을 강타한 테러 이후 유럽과 미국의 외교 부문의 차이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커다란 외교적 분쟁이 일어났다. 미국은 이라크를 대량 학살 무기를 생산·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테러 국가로 지적하였고 이를 위해 예방전을 치른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은 대량 학살 무기의 생산이나 보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설사 이라크가 이들 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예방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분열이 일어났다.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미국과 함께 이라크 침공에 참여하였고, 스페인의 경우 대규모 폭탄 테러에 이어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일어나 철군을 결정하는 등 이라크 전쟁은 역내, 국내적으로 모두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미국과 유럽은 이란의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제재의 압력을 사용하려는 미국 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유럽 측이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2004년에는 유럽 측에서 천안문 사태 이후 대중국 무기 금수 조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이를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유럽의 움직임은 무기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제일 중요한 동기이지만 일부에서는 중국을 무력화 함으로서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을 견제하려는 동기도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차별성은 경제적 이익의 충돌과 외교적 입장의 대립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탈냉전 시기 유일 초강대국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려는 유럽의 경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미국과 유럽의 상호 관계는 물론 현실주의의 영향력 확대나 자유주의의 이익의 대립으로 분석할 수도 있지만 정체성의 차원을 도입할 경우 보다 명백하고 세밀한 이해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의 유럽과 미국의 대립은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애착과 집념, 그리고 농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인간과 영토를 정서적으로 연결하는 활동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축산 산업에서 미국이 가축에 대해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반면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그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 역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대립이라기보다는 농업과 건강, 그리고 환경에 대한 두 문화의 차이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세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정책면에서 반복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3세계와의 관계

유럽은 19세기 대표적인 제국주의의 중심이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20세기 중반까지 세계를 포괄하는 식민제국을 보유하고 있었고 포르투갈과 같은 경우 1970년대까지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운영하였다. 20세기 후반에 이뤄진 대규모 탈식민화는 식민지 국민들의 반발과 본국 국민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과거의 식민 체제하에서 맺어진 관계를 변화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속함으로써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 공동체는 무역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채택해 왔다(Mailafia, 1997). 소위 아프리카 캐리비언 태평양 ACP 국가들에 대해 수출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농산물과 광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1971년부터 유럽은 세계 최초로 일반 수혜 제도(SGP, System of Generalized Preferences)를 실시하여 과거 식민지 뿐 아니라 일반적인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다른 한편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게는 유럽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당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펴고 있다. 게다가 이들 국가의 경제 발전만이 지속적인 이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경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을 실질적인 영향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을 가장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실제로 유로화가 등장하면서 프랑화와 고정 환율을 유지하던 아프리카 CFA 프랑권은 유로권에 포괄되었다. 다른 한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1986년 유럽에 가입하면서 남아메리카와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였고, 남미 일부의 반미적 성향과 유럽의 미국과의 차별성이 합쳐져 긴밀한 관계가 수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들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자 상대적으로 미약한 진출 지역인 아태지역으로의 정책적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대한 중국의 경제 발전은 유럽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며, 지구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유럽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정체성이 미국과의 경쟁관계 속에서 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대미 관계가 정체성 형성에 다시 영향을 미치듯이, 유럽연합의 제3세계 정책과 유럽 정체성은 서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과거에 ‘우리’가 지배했던 ‘그들’에 대해 ‘우리’는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책임감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대적인 조치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럽의 대외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의 차원 뿐 아니라 ‘우리’와 ‘그들’의 상호 관계 및 정체성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3. 유럽 모델의 수출

유럽연합은 스스로를 성공적인 지역 통합의 모델로 내세우면서 다른 대륙과 다른 지역에서도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 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을 공식적인 외교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조홍식, 1998). 예를 들어 최근에 출간된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 설명 책자에서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이 국가들 간의 협력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European Commission, 2004), 유럽연합은 적어도 1980년대 초반 아세안과의 관계를 설립하면서 지역협력체의 상호 관계를 진흥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세기 국제 사회에서 연방 국가를 지향했던 범 아랍주의나 범 아프리카주의는 모두 실패하였다. 반면 민족 국가의 주권과 연합의 형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킨 사례는 바로 유럽연합이 유일하다. 경제적인 통합과 정치적

인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유럽 모델론자들의 주장이고 자부심이다.

실제로 유럽의 성공적인 사례를 모델로 삼아 지구 각 지역에서는 지역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미의 메르코수르 즉 남미 공동시장의 추진이나 중미의 공동시장 추진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는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 형성 및 정치 협력을 들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사례는 유럽 측의 제안과 요구를 통해 다른 대륙의 정상들과 대륙 대 대륙 형식의 정상회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이고 가까운 사례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ASEM)을 들 수 있다. 1996년 태국 방콕에서 처음 시작된 아셈 회의는 유럽 연합 회원국과 아시아의 아세안 회원국 및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회의이다. 중요한 것은 아셈 회의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러한 대륙 대 대륙의 대화 방식으로 인해 처음으로 아시아라는 단위가 구조화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제도의 관성으로 일단 구조화된 제도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아시아 역시 아셈의 계기로 규정된 동아시아가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라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제도화의 정도를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유럽 모델의 수출은 유럽 측의 수출 노력보다는 수용하는 측의 수입 의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럽 모델의 수출을 촉진하고 자극하는 요인은 안정적인 국제 환경의 조성이라는 부분이다. 빈번한 전쟁의 대륙 유럽이 반세기가 넘게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민족 간의 화해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며, 유럽 통합은 결국 이러한 민족 간의 화해와 협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유럽 모델은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유럽의 좌파는 유럽 사회 모델을 인간적인 시장 경제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유럽의 우파는 여전히 경직된 경제 사회 제도가 유럽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의 선봉에 있었던 영국에서는 유럽 통합이 사회주의적 유럽 건설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 차원에서 유럽 모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고속 경제 성장의 모델로서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 블록의 형성이

라는 차원에서일 것이다. 예를 들어 1996~97년 동아시아의 금융 경제 위기에 이어 나타난 논의들은 세계화의 파장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지역 경제권의 형성이라는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국제사회의 정치적 모델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우선 미국이라는 유일 초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기 위해 유럽은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다. 다음은 제3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미국보다 관대한 개발 지원 정책으로 과거 식민지적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과의 대화에서 유럽 모델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결국은 전세계가 유럽식 지역 통합 체제로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V. 정체성의 정치

이 논문은 유럽연합 차원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시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유럽 정체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현실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유럽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으로 표현되는 정체성은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의 민족 정체성과 반드시 대립하는 관계는 아니다. 다만 민족과 유럽을 대립적으로 규정하는 정치 세력의 전략에 따라 선거 시기에는 다소 대립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미래 유럽에 대한 인식은 국제 협력체에서 국제적 세력 또는 세계 연합의 모델로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둘째로는 유럽 차원에서 진행되는 정체성 만들기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역사 속에서 유럽을 어떻게 정의내리는가, 공간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유럽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유럽 정체성이란 다른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유동적이며 분쟁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유럽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성공적

인 정치·경제 모델로 내세우는 것은 물론 다른 대륙도 유럽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촉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변화하는 유럽 정체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를 보다 상세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기구 내에서 추진되는 활동과 시민 사회에서 벌어지는 유럽 정체성 관련 활동을 보다 미시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모든 영토 정체성의 특징이 경계를 통해 자타를 구분하고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럽의 반복되는 확대 현상과 정체성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유럽의 경계가 어디서 멈출 것인지, 또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상두. 2003. 「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유럽의 안보통합」. 『한국정치학회보』 37권 2호. pp. 325-341.
- 김미경. 2005. 「초국가적 수준에서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와 유럽연합의 민주적 결핍. 비교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정치학회보』 39권 2호. pp. 65-84.
- 조홍식. 1995. 「유럽 통합의 사상과 정치세력」. 『국제정치논총』 35권 2호. pp. 337-360.
- 조홍식. 1998. 유럽 통합의 이론. 연구논문 98-02. 성남: 세종연구소.
- 진시원. 2004. 「유럽연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경쟁이론들의 장단점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pp. 441-464.
- Albert, Michel. 1991. *Capitalisme contre capitalisme*. Paris: Seuil.
- Badie, Bertrand. 1997. *Les deux Etats*. Paris: Seuil.
- Bayart, Jean-François. 1996. *L'illusion identitaire*. Paris: Fayard.
- Beaurepaire, Pierre-Yves. 2004. *L'Europe des Lumières*. Paris: PUF.
- Belot, Céline. 2000. "Les jeunes face à l'intégration européenne." *Agora débats/jeunesse* No20 2e trimestre. pp. 35-48.
- Biersteker, T.J. and Weber, C. 1996. *State Sovereignty as Social Constru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evallier, Jean. 1992. *Centre, périphérie, territoire*. Paris: PUF.
- Cautrès, Bruno. 2003. "La participation aux élections européennes comme problème de représentation politique" in Sabine Saurugger (ed.), *Les modes de représentation dans l'Union européenne*. Paris: L'Harmattan. pp. 38-57.

- Connor, Walker. 1993. *Ethnonation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eckel, J.T. 1998. "The Constructivist Tur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World Politics* 50. pp. 324-348.
- De Montbrial, Thierry. 2004. *La guerre et la diversité du monde. Les Etats-Unis contre l'Europe puissance*. Paris: L'Aube.
- De Rougemont, Denis. 1990. *28 siècles d'Europe*. Paris: Christian de Bartillat.
- Duchesne, Sophie and Frogner, André-Paul. 2002. "Sur les dynamiques sociologiques et politiques de l'identification à l'Europe."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52(4). pp. 347-365.
- Duchesne, Sophie. 1997. *Citoyenneté à la française*.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 Dumont, Louis. 1991. *Essai sur l'individualisme. Une perspective anthropologique sur l'idéologie moderne*. Paris: Seuil.
- European Commission. 2004. *A world player. The European Union's external relations*. Luxembourg: EU.
-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Gerbet, Pierre. 1983. *La construction de l'Europe*. Paris: Imprimerie nationale.
- Grieco, Joseph M. 1993.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Limits of Neoliberal Institutionalism and the Future of Realist Theory" in David A. Baldwin (ed.),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116-142.
- Hall, Peter A. and Soskice, David W. (eds.). 2001.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stings, Adrian. 1997. *The Construction of Nationhood: Ethnicity, Religion and Nation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bsbawm, Eric J. 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History*. New York: Touchstone.
- Kahler, Miles and Link, Werner. 1996. *Europe and America: A Return to History*. Washington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s.
- Kastoryano, Riva (ed.). 1998. *Quelle identité pour l'Europe?: Le multiculturalisme à l'épreuve*.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 Koslowski, R. 1999.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European Union as a federal polity."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6(4). pp. 561-578.
- MacCormick, N. 1999. *Questioning Sovereign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ilafia, Obadiah. 1997. *Europe and Economic Reform in Africa: Structural Adjustment and Economic Diplomacy*. London: Routledge.
- Marcussen, M., Risse, T., Engelmann-Martin, D., Knopf, H.J. and Roscher, K. 1999.

- “Constructing Europe? The evolution of French, British and German nation state identities.”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6(4). pp. 614-633.
- Martin, Denis-Constant. 1992. “Le choix d’identité” *Revue française de science politique* 42(4). pp. 582-593.
- Moravcsik, Andrew. 1998.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 London: UCL Press.
- Morin, Edgar. 1990. *Penser l’Europe*. Paris: Gallimard.
- Padoa-Schioppa, Tommaso. 1994. *The Road to Monetary Union in Europe: The Emperor, the Kings and the Gen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bourin, Paul. 1994. *L’Etat-nation face aux Europes*. Paris: PUF.
- Said, Edward W. 1979.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 Smith, Anthony D. 1986.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New York: Blackwell.
- Smith, Anthony D. 1998. *Nationalism and Modernism: A Critical Survey of Recent Theories of Nations an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 Smouts, Marie-Claude. 1998. “The region as the new imagined community?” in Patrick Le Galès and Christian Lequesne (eds.), *Regions in Europe*. London: Routledge.
- Strange, Susan. 1988. *States and Markets*. London: Pinter.
- Todd, Emmanuel. 1990. *L’invention de l’Europe*. Paris: Seuil.
- Waever, Ole. 1998. “Insécurité, identité. Une dialectique sans fin” in Anne-Marie Le Gloanec (ed.), *Entre union et nation. L’Etat en Europe*.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A Study on the Formation of European Identity

Cho Hong Sik

Visiting Professor of Beijing Foreign Studies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process of identity formation at the European Union level. It begins by examining whether a so-called European identity exists at all. Actually, an identity represented by a sense of belonging and a consciousness of solidarity towards Europe and Europeans has been reinforcing and is not necessarily in contradiction with existing national identities. It nevertheless should be underlined that, in electoral periods where certain political forces chose to define Europe and nations in contradictory terms, there are temporary clashes between

them. The perceptions concerning Europe's future are various, from that of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to those of international power or a model of cosmopolitan federation. Second, Europe is in full process of identity formation. How to define Europe in history? Where are the spatial limits of Europe? What is European? These debates about the European identity are as much fluid and conflictual as most of the debates about identity. Third, Europe defines itself as a successful model of politics and economy in its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ries to promote its own way, that of a regional integration. Finally, to have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identity formation, one should examine in detail the interactions between macropolitical integration and the micropolitical strategy of identity formation.

Key Words : Europe, European Union, Identity, Nation, Nationalism